

소금길: 와카사의 소금을 수도로 운반하는 길

개요

8세기 와카사만 연안의 몇몇 지역은 소금의 중요한 생산지였으며, 소금은 수천 년 동안 음식의 맛을 내거나 보존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만의 바닷물은 농축·비등·소성을 조합한 과정을 통해 소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세금은 돈이 아닌 물품으로 납부되었고, 와카사에서 만든 소금은 세금으로 당시의 수도인 헤이조쿄(현재의 나라)로 출하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소금 생산

일본에는 암염 퇴적물이 없고 습기가 높기 때문에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것만으로는 소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수세기 동안 화로를 사용해 바닷물을 끓여서 결정화하는 소금 제조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건조시킨 해조류나 해조류의 재에 바닷물을 뿌려 농축액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질냄비에 끓여 소금 결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굵은소금을 토기로 구워서 쓴맛 성분을 분리하여 보존과 수송에 편리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와카사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제염소 터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현재의 오바마 해안 근처 오카쓰라고 하는 고대 관영 제염소 터 등도 있습니다. 발굴조사에서는 토기 파편과 여러 곳의 화로 위치가 밝혀졌으며, 이 지역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도로의 소금 공급

7세기 중반부터 일본은 많은 법제 개정을 도입하고 공식 과세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개인세의 일종인 조(調)는 당시의 주요 세금 납부방법이었던 쌀 이외의 물품으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와카사 지역 사람들은 주로 소금으로 조라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수도였던 헤이조쿄의 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와카사의 소금에 달던 패로 사용된 목간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목간의 표기에는 특정한 경칭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출하물이 천황이나 궁정에 보내지던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시품

이 코너에 전시되어 있는 도구와 모형은 고대 와카사 지역에서 사용된 소금

생산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바마와 와카사에 있는 오카쓰, 아노시오하마, 소네다의 제염소 터에서 토기 파편이 출토되었습니다. 전시품들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주된 과정을 보여주며 역사가들이 소금 덩어리를 수도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추정하는 바구니를 예술가의 묘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